

## 4개 특례시장들 “허울뿐...규모 걸맞는 권한 달라”

개정 지방자치법에 구체적 권한 미반영  
타 관련법 개정 정부 움직임도 없어  
4개 시장들 靑·행안부 잇달아 면담  
특례권한 확보 위한 적극지원 요청

특례시 출범 6개월을 앞두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인 권한이 담겨있지 않아 자칫 허울뿐인 특례시가 될 위기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6월 시행령 조안을 발표했지만 특례시 지정 기준과 절차 규정, 인구 기준만 규정하고 특례 사무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또 다른 관련법 개정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4개 특례시장들은 “4개 특례시가 특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20일 4개 특례시 등에 따르면 영례형 수월시 시장·허성무 창원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근기 용인시장은 전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전혜

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하고 4개 특례시가 제안한 특례 사무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특례시의 특례 사무 기준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4개 도시 시장은 “4개 특례시는 규모가 광역시급인데 정부의 정책 기준으로는 ‘중소도시’로 취급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4개 도시 시민들은 오랫동안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재산액’으

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시민은 사회보장수혜에서 역차별받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이 더 나은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 (서울시·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00만원, 중소도시 420만원, 농어촌 350만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준다.

특례시는 도시 규모·생활 수준이 광역시급이지만 ‘중소도시’에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광역시 시민과 재산금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면담을 마친 후 영 시장은 “이철희 정무수석은 4개 특례시의 건의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또 “전혜철 장관은 ‘특례시 출범을 위해 관

련 부처와 4개 특례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제2차 지방일괄 이양법 특례사무가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4개 도시 시장은 또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 심의·변영, 지방분권법 개정(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코로나19 직격탄 자영업자 한계상황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에서 20일 작업자들이 폐업으로 들어온 냉고 등 주방기구를 옮기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6월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9조3000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6월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40조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법적 근거 마련

도의회, 관련 조례안 의결  
2025년까지 1460억 조성 추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배당금 일부와 도의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을 조성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성 기금은 도내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개발 지원사업,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에 필요한 용역 등의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0여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도는 이재명 지사 공약사업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입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학 현대지구, 3기 신도시 등에서 시행했거나 추진 중이다.

한편 도의회는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예술활동 증진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로 2만5000원,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창작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도의 내내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면 내년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동물복지출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 등도 가결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주상복합건물로 조성

지식산업센터·행복주택 등 갖춰  
33층 규모 2026년 완공 목표

4차례 민간개발이 무산되면서 공공개발로 추진되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이 여객시설과 지식산업센터, 행복주택 등을 갖춘 주상복합건물로 조성된다.

6000억원 정도를 추산되는 사업비는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등 분양수익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내달 건축 기본계획 용역·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6년 4월 완공 목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은 3만 200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3층 규모(건물면적 24만㎡)로 건립되는 가운데 여객시설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공공업무시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포함한 주상복합, 청년 활동공간 등이 들어선다.

여객시설은 하루 이용객 1만 명을 염두에 두고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까지 2만8000㎡ 공간에 조성된다. 또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공간을 지식산업센터로 활용해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 방식으로 총 510세대를 공급하며 이 중 120세대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조성된다. 공공기관 입주 공간과 생활편의·상업시설도 들어서고, 스포츠 놀이터와 어린이 작업체험 테마파크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도 조성한다.

유성시외버스정류소는 신축하며 승차권 판매 시스템 설치·시운전 등을 거친 뒤 내달 12일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유성복합환승센터 부지에 들어설 정류소는 부지 2800㎡, 건물면적 620㎡ 규모로 건립된다.

하계정 시장은 “시외버스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시철도 등과 효율적으로 연계해 시민이 유성복합터미널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 김경수 경남지사 운명 오늘 가른다

지난해 11월 황소상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맷값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황소심 이후 8개월 만에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 ‘킹크랩’ 인지 여부 핵심쟁점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맷값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지사의 맷값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하위법 특검 측은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김씨 측과 맷값 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씨가 ‘선행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2심에서 유죄와 판단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특검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졌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일본 선다이 총영사직을 김씨 측에게 제안한 것은 2018년 6월까지 맷값 조작을 계속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고 무죄로 판결했다.

창원/ 김형준기자 kimhj@jeonmae.co.kr ▶ 3면에 관련기사

동해안 코로나19 ‘확산일로’...강원도내 누적 4천명 ↑ ▶ 3면 | 함양산삼향노화역스포, 산삼 가치 세계화 머리매대 ▶ 10면 | 여순사건 유족회장 ‘가짜 유족’ 논란...“철저 조사” ▶ 13면

전국매일신문 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  
**여주시**

국토의 균형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GTX노선 확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여주시 GTX노선 유치 기원"

단신브리핑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연구용역 착수

경북도는 20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경상북도 기후 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발주한 경상북도, 용역 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착수보고와 지문, 향후 용역 진행방향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 분석, 경북의 기후변화 여건 분석, 기존 대책의 성과 및 평가, 2050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목표 수립, 온실가스 감축 계획, 이행관리 방안, 탄소 중립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다. 최영숙 도 환경산업지원국장은 "용역 착수로 경북도의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이어 이행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됐다"며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최선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해 탄소 중립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신용대기자 shindy@jeonmae.co.kr

트램사업 추진위원회 구성...노선 검증 참여 등

경기 성남시는 트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시는 엔지니어링협회, 경기연구원, 한국철도학회, 한국교통대학교, 서울교통공사 등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 교통도시국장을 부위원장 등으로 하는 가운데 건설분야와 운영분야로 구성한다. 건설 분야는 기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조차계획 마련, 경제성 상황 방안 검토, 재정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대응전략 수립,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자료 역할을 수행하고, 운영분야는 실제 트램 운영 시 교통 시스템(신호, 전력 설비 등), 차량(수소트램, 배터리 트램 등), 배스노선조정, 교통차리계획, 갈등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경 착수할 성남도시철도(트램)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성남에서 추진 중인 철도노선에 대해 객관적 검증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트램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만큼 트램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트램, 건설, 운영, 기술 등 전문가의 노하우를 확보하고, 실제 트램 운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발굴, 예방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트램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일영기자 leely@jeonmae.co.kr

여성농업인 복지비우체 추가 지급

강원 춘천시는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 비우체 추가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복지비우체 1차 신청을 받아 2021명 신청, 비우체 카드 발급했으며 이번에 500명의 사업 추가 확보했다. 복지비우체는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우체 카드를 1인당 20만원씩 지원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춘천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이다. 다만, 2020년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 사용 가능한 업종은 안경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서점, 스포츠의류점, 볼링장, 호텔 등 30개 업종이며 신청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원 자격 등을 검토해 2444명의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확정된 대상자를 포함 올해 2581명에게 복지비우체를 지급한다. 춘천/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동해안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일로'

강원도내 누적 확진자 4천명 넘어...20대서 돌발적 증가 강릉 4단계 상향속 인접 동해안 시군 '풍선희곡' 초비상

강원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강릉 10명, 양양 5명, 원주 4명, 동해 2명, 춘천·태백 각 1명 등 23명이 추가 발생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4012명으로 집계됐다. 도

내 하루 최대 확진자 발생은 지난 17일 52명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내 하루 최대 발생은 작년 12월 19일 54명이다. 도내에 확진자 42명 중 32명이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시군에서 발생했다. 특히 강릉에서 발생한 확진자 24명 중 절반은 20대 이하 젊은 층이다. 강릉에서는 최근 1주간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오는 등 확산세가 개선 상황이다. 강릉시는 지난 19일 0시부터 도내에서 유일

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상향하고, 지역 내 모든 해수욕장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폐쇄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 동해와 양양, 속초 등 강릉과 인접한 동해안 시군들은 강릉의 4단계 조치에 따른 풍선희곡과 차단에 인접함을 기울이고 있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번 확산세를 다 잡지 못하면 병상 부족 등 의료 붕괴도 현실화할 수 있다"며 "휴가철 피서지에 1100여명의 접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강력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춘천/김영태기자 youngtk@jeonmae.co.kr



김부겸 국무총리(왼쪽 세 번째)가 20일 오후 해수욕장 방역 현장점검으로 충남 보령시 대전해수욕장을 찾아 방역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김영태기자

충남도, 5대 현안사업 정부지원 요청

양승조 지사, 김부겸 국무총리에 민항·공공기관 이전 등 요청

충남도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20일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지역경제 상황 등을 살피기 위해 이날 대전해수욕장과 보령 청소농공단지, 부여 스마트엔터테인먼트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충남 군비행장 민항시설 건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가로림만 교량 건설(국도28호선),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설치 등에 대해 건의했다. 충남 군비행장 민항시설 건설은 서산 해미비행장에 2025년까지 450억원을 들여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 공항 시설을 조

성한다는 계획이다. 양 지사는 지역 주민 항공 서비스 소의 해소, 충남 혁신도시 지정, 해미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 서해선 고속화 등 공항 연계 교통망 확충 등 미래 항공 수요 증가로 충남민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관련하여는 해양생태 보존, 지역 길동 해소,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예타 통과 및 내년 설계비 1억원 예비비를 건의했다. 이 사업은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 일원에 내년부터 2026년까지 2448억원을 투입, 깎발 생태계 복원과 해양정원센터 조성, 홍보관 운영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가로림만 해상 교량은 태안 이원 민대협에서 서산 대신 북항

리까지 25km 규모이며, 연결도로까지 5.61km를 건설하는데 드는 사업비는 총 2388억원이다. 양 지사는 가로림만 해상교량이 건설되면 인근 국가선박과 대차석유화학단지, 대산항, 발전소 등의 산업물동량 증진은 물론, 일차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타 통과 지원을 건의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절실하며, 혁신도시 비 전형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충남 혁신 도시에 공공기관이 우선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가칭) 설치에 충남 혁신도시의 인접적 정적에 의해 필요하며, 삽교역 설치에 반영해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중 사업비를 조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충남취재본부/한상규기자

전통시장도 온라인 주문·배송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2021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 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구리전통시장, 부천상동시장, 오산오색시장, 고양 일산시장, 수원 화서시장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5개 전통시장에는 소비자가 전통시장의 제품과 신선한 물품을 공공배달망 '배달특급'을 통해 주문하면 신속하게 당일 배송이 이뤄지도록 온-오프라인 배송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시장 1곳당 최소 23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모두 3억 6000만원을 들여 플랫폼 구축, 배송센터 구축,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마케팅 비용, 물품 제작비용 등을 지원한다. 소비자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장바구니를 채울 수 있도록 경기도주식회사와 협업해 배달특급 내에 '전통시장 장보기 코너' 기능을 개설, 오는 9월부터 전통시장의 입점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이 사업이 배달특급, 경기지역화재보험, 경기지역화재보험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점진적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석 도 소상공인정책관은 "소비자에게 편리한 전통시장 정보 제공과 더불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동시 사용으로 가계와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진구기자 kig@jeonmae.co.kr

경남도, 체육인 인권보호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마산대 내 지역사무소 설치 오는 10월부터 본격운영 방침

경남에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가 설치된다. 도는 경기도, 대전시와 함께 지역사무소 설치지역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마산대학교 내 경남스포츠 산업육성지원센터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방침으로 스포츠윤리센터와 협력 업무협약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오는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창원/김현준기자 kimhi@jeonmae.co.kr

앞서 도는 지난 3월 경남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4월부터 신고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도모하려고 스포츠 인권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8월부터는 도내 전 직종운동경기부 선수단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다. 김창덕 도 체육지원과장은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가 경남 체육인의 인권침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포츠윤리센터와 협업해 경남도의 스포츠 인권이 신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신항, 항만 배후단지 48만㎡ 준공

전남 목포항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가 준공됐다.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항만 배후단지는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을 설치해 항만의 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업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국비 452억원을 투입해 복합물류 제조시설, 업무관리시설, 근린공원 등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 48만5000㎡를 조성하는 것으로 2017년 6월에 착공했다. 도로를 비롯해 급·배수 시설, 오수 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항만배후단지 내에 입주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목포/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배후단지 중 목포신항 자동차 부두와 연결한 일부 부지에는 자동차 연과 업체의 입주를 우선 추진한다. 이외의 부지는 지역 산업, 입주 희망 기업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이 배후단지에 민간기업들이 입주하면 연간 6만8000TEU(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항만물동량 창출과 연간 155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운영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남권 수출입 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져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질병관리청
사업장에서의 생활방역수칙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이 생기면 즉시 퇴근하고 검사 받기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작업 중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하기
회의나 출장은 가급적 비대면 영상회의로 대체하기
공용공간에서 음식섭취 자제하기
주기적으로 환기, 소독하기
\*주요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우리와 함께 근무중에도 방역수칙을 꼭 지켜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시이용 가능한 인원과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광역시급’ 수원시 정책기조 ‘사람중심 정책’ 뿌리내렸다

경기 수원시 민선 5~7기 성과 수록집 발간 협치·자치분권·공정 등 12개 부문 성과 수록

경기 수원시가 민선 5~7기 시정 성과를 수록한 '사람이 반갑습니다. 빛나는 조각들' 수원에 담다'를 발간했다. 이번 수록집에는 협치, 자치분권, 공정, 문화·인문, 청년·교육, 자연·환경, 도시계획, 교통, 안전, 지역경제, 복지, 혁신 등 12개 부문 성과를 담았다.

### ● 광역시급도시·사람중심 행정

'시민과의 약속'(공약)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정책과제를 제안·개발하는 '좋은시정위원회'와 도시기본 구상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대표적인 가바나스 제도다.

살아도 2017년 7월 출범에 이듬해 2월까지 활동한 '광고산 상생협의회'는 광고산 일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광고산 환경을 보전할 방안을 모색했다.

민·관 협의체인 광고산 상생협의회는 8개월여 동안 5차례 회의를 열어 광고산 주민, 시민 의견을 수렴한 끝에 '광고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 체결을 끝내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부에 광고산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했고, 환경부는 변경영향을 승인했다. 시는 2019년 7월, 광고산수원보호구역 일부를 변경(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산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을 고시했다.

### ● 숙원사업 해결

'수원특례시 실현'이 대표적이다. 시는 2013년 '특례시'를 수면 위로 올렸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올해는 60여 년 만에 '수원역 상매매집결지'를 폐쇄했다. 시는 경찰·시민단체·주민과 협력해 수



경기 수원시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빛나는 조각들' 수원에 담다'라는 민선 5~7기 시정성과를 기록한 수록집을 발간했다. 사진은 코로나19 방역·격리형 홀도네트워크. <수원시 제공>



원역 상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상매매집결지 내 상매매 입주들이 5월 31일 업소를 자진폐쇄했다.

### ●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2013년 의왕시, 2019년 용인시, 2020년 화성시와 행정경계를 조정했다. 특히 용인시와 행정경계 조정은 7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다.

지난해 1월에는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북선전철 '신수원선'이 개통되고,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구간이 연장되면 수원시는 '격자형 홀도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코로나19와 관련 '수원형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등 선도적으로 감염병 대응 정책·사업을 추진하며 '자자체 감염병 대응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 신수원선,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연장 구간이 모두 개통되면 수원시 전철역은 20여 개로 늘어나게 된다.

### ● 안전도시로 구현

2011년 99개 안전 CCTV는 2021년에는 1만 100여 개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수원시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시민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전국 최초로 '간접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구축했다. 8월부터는 '간접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소분차·경철차까지 확대 적용한다.

코로나19와 관련 '수원형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등 선도적으로 감염병 대응 정책·사업을 추진하며 '자자체 감염병 대응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

### ● 인문도시로 거듭

2011년 9개 문화 공공도서관은 21개로 늘어나 이제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갈 수 있는 도시'가 됐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인문클럽'을 신설하고, 평생학습관·SKO트러블·수원시립 아카데미·수원시립 등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염 시장은 "수많은 난관을 뒤로 하고 시민과 공직자의 노력이 빛아낸 눈부신 성과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 수원시는 지금 '사람 배세 물안개 도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며 "나아가 더 큰 수원역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조각이라 할 '수원특례시'를 시민 모두의 힘으로 이뤄냈다"고 말했다.

수원/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 서울 아파트 전세 '고공행진' 하반기 더 심해지나

서울지역 하반기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반기의 4분의 3 수준으로 줄고, 재건축 입주 수요에 청약 대기 수요까지 더해져 전세난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최근 한 달 동안 0.10% 인상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이 발표되자 2월에 0.07%, 3월 0.03%, 4월 0.02% 수준으로 전셋값이 미물 보이다가 5월 마지막 주 0.05%로 상승 폭을 다시 키워더니 6월 이후 최근까지 0.08%, 0.11%, 0.09%, 0.10%, 0.11%, 0.13%로 변동 폭을 키워며 무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셋값 상승은 재건축 입주수요의 영향이 크다. 지난달 서초구 반포 1·2·4지구 2210가구가 재건축 이주를 시작하면서 전세 물량이 함께 줄고, 입주 수요가 인근으로 옮겨가면서 일시적으로 전세난이 심해졌다.

여기에 반포 3지구 1400가구가 재건축을 위해 추가로 이주에 나설 예정이어서 전세난 심화 우려는 더 커졌다. 동작구 역시 노량진·흑석동 등의 재건축 입주 수요로 전세 물량이 줄고 있다.

아울러 병학 이사철을 맞아 인기 학군이 있는 지역의 전세도 품게 되고 있다.

이름과 병학 이사철을 맞아 인기 학군이 있는 지역의 전세도 품게 되고 있다. 양천구 전구의 경우 지난 전세 수요가 목동신시가지 단지로 몰리며 전셋값 상승률이 0.25%로 전주(0.07%)의 3.5배로 치솟으며 서초구(0.30%)를 제치고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난은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 물량이 급감했고, 입주인들이 신규 전세의 경우 미리 보증금을 2~4년 뒤 수준으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도 줄어든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3만8834가구로, 작년(4만9411가구)보다 37.5% 적다.

올해 입주 물량 중 1만7723가구는 상반기에 입주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25.9% 적은 1만3141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서울의 내년도 입주 물량은 2만463가구로, 올해보다 33.7% 줄어든 전망



이다. 정부는 전세난 우려에 올해 강남권 재건축 입주수요가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입주 물량도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전세난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재건축이주·학군수요 등으로 서초·동작·양천구 '전세품귀' 하반기 아파트 입주 1만3천가구 상반기보다 26% ↓

윤지

해부동

산114

수석연

구원은

"하반기

전·월세

난주

전세 수요가

목동신시가지

단지로 몰리며

전셋값 상승률이

0.25%로 전주(0.07%)의

3.5배로 치솟으며

서초구(0.30%)를

제치고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

률을 기록했다.

전세난은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 물량이

급감했고, 입주

인들이 신규

전세의 경우

미리 보증금을

2~4년 뒤 수

준으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도 줄어

든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으로 3만8834

가구로, 작년(4

만9411가구)

보다 37.5%

적다.

올해 입주

물량 중 1만7

723가구는

상반기에

## 오늘 대법선고...경남도청 긴장감 '팽팽'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 코로나 대책·메가시티 등 도정 탄력 2심 판결 확정시 지사직 상실·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일 경남도청에는 긴장감이 팽팽하다. 김 지사는 전날까지 잠인상 경조사 휴가를 보냈고 이날 울산에서 열리는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선고일인 21일 연가를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조사 휴가 중인 지난 16일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남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석하고 19일에는 코로나19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방역상황을 점검하며 지사

부재상황을 최소화하는 모습이었다. 급격하게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대응을 제외하면 도정은 김 지사 선고 결과에 온 신경이 집중된 듯한 느낌이다.

대법원이 재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도정은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어 경남 도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경남 도정은 관버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도청 공무원들은 행정력을 쏟아 할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관련대책 체제 전환 시 도청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김 지사의 측근은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김 지사는 경남에 머무르며 차분히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9년 1월 1심에서 벌쟁 구속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는 1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항소상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업무방해 혐의는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 지사는 이번 대법원 재판에서 '절반의 진실'을 밝혀냈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황원/김현준기자 kmh@jeonmae.co.kr

서산시의의회

# 서산시의주인은 시민입니다

전국매일신문 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



파워인터뷰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

“누구나 인정하는 교육도시 만드는데 힘쓸 것”

“중랑구의 교육은 크게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에 대한 지원, 학교 밖 교육의 주제인 가정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세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다”

이는 민선7기 3주년을 맞은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의 말이다.

류 구청장은 “지금까지 해왔듯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교,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상생하고, 시너지 효과를 얻으며 성장해갈 수 있도록 누구나 인정하는 교육도시 중랑을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경비비조금 매년 증액 올해 70억원

2018년 취임 당시 38억 원이던 교육경비를 매년 증액해 올리는 7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3위 수준으로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파격적이다. 내년까지 8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확대된 교육경비는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학교 환경개선사업, 방과후 특별반 운영 교원역량강화 사업, 학부모회 활성화 지원, 스포츠 버스 지원 코로나 19 관련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한 시설 환경개선이 아닌 공간 변화를 통해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해 중점 추진해 매년 확대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여건을 고려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요 대학 진학을 위한 고교 방과후 교실 운영비, 초·중학생의 기초학력 향상과 다양한 체험 학습을 위한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에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중인 각 학교에 필요한 방역 관련 비용 및 온라인 수업 환경조성 비용으로도 쓰여 학교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 교육환경 변화에 맞도록 자치구 최고 수준의 교육투자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히 학교

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공교육 강화에 집중해 모두가 만족하고 부러워하는 교육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개관

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지하 2층부터 지상7층 규모로 자기주도학습실, 4차 산업체험관, 진로직업체험센터 북카페 등 공간 구성과 최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40회 이상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교육 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계획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만들어 왔다. 교육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것들을 찾고 공교육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상담관실, 학부모 교육, 진로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교육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될 것 전망이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교육에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는 1:1 진학컨설팅, 자기소개서 첨삭, 모의면접, 그리고 주기적으로 학생 맞춤형 멘토링을 진행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까지 진학과 관련된 서울시 교육청 최고의 진학지원단과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해 전문적인 맞춤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 정시 비율 확대에 의해 수능 공부에 부담도 커지고 있어, 학생들이 유명한 강사의 수능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MBTI 성향 감사를 통한 상황별 공부법 지도부터 면학 분위기가 좋은 자기주도 학습실까지 준비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집중도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외로 교육에는 학생 못지않게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학부모의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및 캠프 등 다양한 학부모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 책 읽는 중랑

취업초기부터 곳곳에 공공도서관을 확충해 누구나 10분 거리 내에 도서관을 찾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양원술속도서관, 중랑상봉도서관 개관 및 스마트도서관 설치 뿐 만 아니라 중화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면목동 도서관·주차장 복합시설,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도서관) 등 대규모 공공도서관 건립도 추진 중에 있다.

또 중랑구립도서관을 비롯 지역 구립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학 전 1000권 읽기’ 사업이 요즘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어 흐뭇하다. 권 권 읽기는 영유아기에 책 읽는 습관을 형성시키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책 권 권을 읽도록 장려하는 독서장려 프로그램이다. 권 권 읽기는 올해 5월 기준 4875명이 참여해서 94명이 달성했고 앞으로 참여자를 5000명 이상으로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상생하고, 시너지 효과를 얻으며 성장해갈 수 있도록 누구나 인정하는 교육도시 중랑을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경비 올해 70억 내년 80억 확대 예정 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 교육 허브 역할

● ‘취학 전 1000권 읽기’ 주민 호응 높아 SH분사 유치 등 현안사업 추진 ‘착착’

확대할 계획이다. 목표치 5000명은 대상자 7079명(5세~7세) 중 70%에 이른다. 취학전 전권읽기와 더불어 지난 5월부터 면동초, 신내초 등 지역 내 11개 초교가 참여해 초등 전권읽기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독서 인프라 확대와 함께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구 개발 등을 통해 책 읽는 문화를 만드는 공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제가 취임한 이후로 교육분야에 큰 무게를 뒀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교육지원정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구 교육민족도가 25개 자치구 중 2017년에 18위에서 2019년에는 6위 공교육 환경면적도는 2017년 11위에서 2020년에는 3위 짧은 기간 동안 큰 폭으로 상승했다.

● 교육분야 외 주요 현안사업 추진

용마산, 봉화산, 망우산, 중랑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인정이 넘치고 살기 좋은 지역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주거중심 도시로 개발돼 무엇보다도 경제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속도감 있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유

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매년 한 해 동안 가장 공감 받은 10가지 사업을 주민이 직접 선정하는 ‘중랑구 10대 뉴스’가 있다. 주민들이 뽑은 10대 뉴스 1위에 2019년, 2020년 2년 연속으로 SH분사 신내동 이전이 선정됐다. 2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도 SH공사 이전이 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그대로 느껴졌다.

주민의 열원이 모여져 2019년에는 SH분사 중랑구 유치라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9월 서울시장에서 SH공사, 서울시, 중랑구가 모여 이전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

현재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SH분사는 상주 직원 1300여명 뿐 아니라 연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 공기업으로 고용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착공해 2024년 SH분사가 들어오게 되면 우선 지방재수가 증가하고 구 이미지 및 인지도 상승으로 민간기업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 및 방문객 유입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와 고용증가로 지역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더로 경제의 르네상스가 열리는 것이다.

한강기업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홍보 및 상징성 확보 등으로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내역 주변 지역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도 큰 시너지효과가 예상된다.

면목동 일대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의 순조로운 추진으로 지역주민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행정·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 면목유수지 등이 2030서울생활권계획에 포함되면서 공공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대규모 생활 SOC시설들이 확충될 예정이다.

앞으로 경제도시 중랑 면모를 대외적으로 선풍하게 부각시키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만해 한문운, 소과 방정환 등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80여명의 인물들이 영면해 있는 망우리공원을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망우리공원의 울창한 숲과 5.2km의 산책로는 시민들에게 사색과 휴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살아있는 역사의 교육 현장으로서의 가치도 크다.

지난 4월 ‘중랑망우리공간’을 착공해 올 연말에는 완공해 주민을 맞을 계획이다. 이곳에는 역사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실을 갖춘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망우리 공원의 인문학적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카페, 화장실, 음수대, 주차장 등을 확충해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중랑 뉴스 브리핑

폐LED조명 재활용 사업 본격 추진

유기금속 추출·장난감 조명 재활용

앞으로 버려진 LED조명은 땅에 묻지 않고 재활용 될 전망이다.

서울 중랑구가 이달부터 폐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재활용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막고 버려지는 유기 부품들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폐 LED조명 재활용 전문 업체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주민들은 동주민센터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기존 폐형광등 수거함 172개소에 폐 LED조명을 함께 배출하면 된다.

수거품목은 일지등, 십자등, 전구형 등 가정에서 쓰고 버리는 LED조명 등이다. 배출된 조명은 집하장에서 분리 보관해 재활용 업체로 회수되고 업체는 LED조명을 해체해 집에서 유기금속을 추출, 해외로 수출하거나 장난감 조명 등으로 재활용하게 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 달부터 시작하는 LED조명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도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친환경 유용미생물 발효액 무료제공

면목본동 주민센터에 공급기 설치

서울 중랑구는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발효액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EM은 사람에게 이로운 효과를 주는 효모, 유산균 등의 미생물 80여 종을 조합 및 배양한 것을 말한다.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환경보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EM발효액은 친환경 세제와 천연 살충제, 약취제제 스프레이 등으로 활용해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다.

2. 용량의 빈 용기를 지원해 면목본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EM발효액을 받아갈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으로 주민 원리가 갖고 접근성이 좋은 면목본동 주민센터에 공급기를 설치했다.

주민들이 EM을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EM체험교실도 연다. 구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자치구 관 프로그램으로 ‘EM 대안 생활제품 만들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021 서울장미축제는 ‘EM원액을 활용한 잠미 미스트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류경기 구청장은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발효액은 활용도가 높아 실생활에서 화학제품 대신 여러 모로 쓰임새가 많다”며 “주민들이 EM 대안 생활제품을 통해 친환경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 EM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전경.



함께 달려온 60년 함께 열어갈 100년

농업인과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 모두와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 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위해 유통을 새롭게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 디지털로 놀랍게

우리 고향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바르게









# 보령 K-방역 선도모델 ‘엄지척’

**‘놀이숲’ 코로나19로 잠정 휴장**

경기 동두천을 자연 친화형 관광명사로 이끌고 있는 수도권 최대의 숲체험 시설, ‘놀이숲’이 재도약을 위한 ‘휴장’에 돌입한다.

놀이숲의 운영을 맡고 있는 수탁사(주)관라이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4단계 상 태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은 가능하나 최근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과 집단감염이 급 격히 늘자 휴장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와 수탁사는 이번 휴장 기간을 기회로 삼아 3개월 운영 간 나타냈던 서비스 공백을 파악하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수탁사와 휴장에 따르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놀이숲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안정 유지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휴장 부 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동두천/ 진양희기자 jyh@jeonmae.co.kr

### 포곡읍 도시계획도로 2구간 확장 공사 완공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 인근 도시계획도로 2구간을 완공해 개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완공된 도로로는 포곡읍 금어리 501-1번지 일 원 대우리길 앞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1-19호 271m 구간과 포곡읍 금어리 101-7번지 스마트빌리지 앞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2-62호 50m 구간이다.

먼저 소1-19호 271m 구간은 도로 폭이 4m에 불과했 던 현황 도로를 10m로 확장해 보도 포함 왕복 2차선으 로 만들었다. 지난 2019년 1구간인 504m를 준공하고 이 번에 남은 구간을 마쳐 개통한 것이다. 사업비는 8억 8836만원이 투입됐다.

소2-62호 50m 구간은 기존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 지로 인해 1차선 도로로 이용했던 미개설 구간을 도로 폭 8m로 확장했다. 사업비는 2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용인/ 유원수기자 youys@jeonmae.co.kr

### 미이스터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충남교육청은 융합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미이스터고 4교를 대상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연무대기계공업고에서 학제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공동교육과정은 산업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학생들의 희망을 고려해 선정된 로봇자동화, PCB제조공정, 기계요소설계, 자기저장소 등 4개 교과에 80여 명의 학생 들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소속 학교의 전공 과 과를 넘어 다른 학교의 전공 과도 함께 배울 수 있다.

미이스터고는 지난해부터 학제제가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와 산업 수요에 맞는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과 과목 융합형, 학교 밖 연계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여성 안심보안관 사업 추진

강원 횡성군은 군민 모두가 안전한 여성친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 주관 여 성 안심보안관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성안심귀갓길 순찰은 여성·청소년의 이동 안전 확보와 우범지역 범죄예방 및 안전진단을 위한 것으로 월 1회, 매월 셋째주 화요일 이뤄진다. 첫 순찰은 20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횡성을 교량하 알대에 조성된 안심 귀갓길을 중심으로 경찰서 및 자율방범대와 연계해 민·관·경 합동 순찰 형태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사업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참여단 의 활동 역량 강화와 활동 기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또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 록 이를 위한 안심보안관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횡성/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착공

강원 원주 남부지역의 체육시설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복합체육센터가 건립된다.

원주시는 최근 ‘원주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착공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공 사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무실동 산 48-8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원주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에는 국비 30억 원, 시비 122억 원 등 총사업비 152억 원이 투입된다.

건축 연면적 3,678㎡,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수 영장(25mX500m)을 비롯해 다목적체육관과 체력단련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내년 7월 이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주/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중간 순회 점검

강원 인제군이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인제군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공모로 신청한 6개 마을 공동체를 대 상으로 중간 순회 점검을 추진한다.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동체는 군비 500만 원을 지원받아 오는 11월까지 교육지원, 문화예술, 환경 정비, 복지봉사, 소득사업 등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분야에 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6개 공동체를 선정하고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첫 순회 사전컨설팅 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중간 점검에서는 사전컨설팅에서 자문받았던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및 활동에 관련한 사항, 보조금 예 산집행에 대한 사항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인제/ 이종민기자 eib@jeonmae.co.kr

### 김부겸 국무총리, 대전해수욕장 방역·청소노동단지 현장 방문

#### 김동일 시장,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현안 자원 요청

“머드 축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충남 보령시가 해수욕장 코로나 19 방역에서도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어 감사하다”

20일 대전해수욕장을 찾은 김부겸 국무 총리는 해수욕장 방역의 중요성을 돌리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총리의 방문은 대한민국의 대표 휴양지인 대전해수욕장의 코로나 19 방역 현장을 둘러보고 해수욕장 운영에 참여하 는 기관·단체 근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동행한 앙승조 충남도지사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대전시방재업무수석장등 대 전해수욕장의 선진 방역시스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지난해 순록빈드에 이 어 올해 체온스터커 시스템을 도입한 시의 적극 행정을 높이 평가했다.

김동일 시장은 총리와의 자리에서 올해 새롭게 도입한 체온스터커 발열 확인과 안 실콜 등록 서비스, 드론을 활용한 방역수 척 홍보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보령시의 방 역시스템이 국내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해 외에서도 해수욕장 K-방역의 선도모델이 되도록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김 총리 일행은 대전해수욕장 일정을 마치고 청송노동공단지로 이동해 단지 운영 현 황을 청취하고 입주업체 대표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입주업체 대표들은 총리의 방문에 감사 를 표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 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김 총리는 “우수한 중견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청송노동공단지지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



김동일(오른쪽 두번째) 보령시장이 20일 대전해수욕장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해수욕장 방역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령시 제공>

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 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더해 김 시장은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보령시가 처한 지역 위기를 타 기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 정과 신 해양 시대의 교두보가 될 보령 신

항 건설,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보령/ 이진영기자 leegy@jeonmae.co.kr

## 군포시, 협치문화 활성화 힘 쏟는다

### 시민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내달 13일까지 30명 모집

경기 군포시가 협치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2021년 퍼실리테이터(토론촉진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민관협력기구인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시정 2층 대회의실 등에서 ‘2021년 군포시민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토론과 퍼실리테이션(촉진 활동/조력활동)에 대한 이해와 실습, 디자인 사고력과 공감 증진의 방법과 실습, 의제 설정과 아이디어 발상 등으로 퍼실리테이터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2주 순연해 진행 된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합쳐서 관심있는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내달 13일까지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gpragnda@hanmail.net), 팩스(031-330-0608)로 전송, 또는 전차지의 QR코드를 통한 구글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러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시민들에게 내 달 18일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을 마친 군포시민 퍼실리테이터들은 시가 주최하는 각종 공론장에 투입될 계획이며 마을단위 차치모임에도 참여하는 시의 역할사업인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최대한 목적으로 하는 방침이다.

특히 시의 현황과 주요 시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시가 주관하는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의 효율적 진행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전국에서 최초로 ‘시민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을 실시해 46명을 배출했고, 이들은 마을활동가 교육토론회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토론회

등 각종 토론회의 촉진자로 참여했으며, 초 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민주시민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 주민자치회 구성과 주민자치회 분과 별 의제 발굴, 문화도시 조성 관련 라운드 테이블 등에서도 원활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 시·군 열린 토론회 제안정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당시, 시민 퍼실리테이터가 주제발표를 하면서 청중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공직자 대상 교육과 일반 시민 대상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퍼실리테이터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관뿐만 아니라 시민들간의 자발적 협치문화와 토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태희 시장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토론문화를 이끄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토론과 소통의 촉진자인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 철원군의회, 270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서 2회 추경 심사



왼쪽부터 김세웅 의장, 박기준 부의장, 문정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중문 의원. <철원군의회 제공>

강원 철원군의회는 20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기획감사실, 관공기획개발실, 민원허가실, 저지정책과, 안전총괄과, 평화지역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정훈 의원은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여건변경으로 사업비를 크게 증액 요구한 것에 대해 당 초부터 세밀한 사업계획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남진 의원은 공에 태봉공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증액 사유를 검토한 결과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미니 어저 사업과 관련해 자체재원만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례 의원은 농촌체험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일수가 현재처럼 부족하므로 코로나19 이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활동 시

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박기준 의원도 태봉사업 추진 시 중장기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고 추가사업 또는 이월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갑수 의원은 공에 태봉공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에 사 당 건립 시점에 맞춰 공예 표준 영정이 걸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하며 불가능 할 경우 공영을 위해 제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중문 의원은 철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가자원을 활용돼 영 화, 연극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서 철원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과 직탕폭포 방문객 증가를 위해 한탄강 물빛길 트레 킹 코스 검토 및 부교를 활용한 부교 설치를 제안했다.

철원/ 지명복기자 jimb123@jeonmae.co.kr

## 파주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기간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한시적 급여 제공

경기 파주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지원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인력의 지원이 중단됐거나 30일 이상 인력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한시적으로 가족이 활동지원가로 등록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복직과 등 발달장애인의 이용시설이 휴관함에 따라 긴급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신청방법은 대상자의 가족이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활동지원사료 등록 을 한 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적용 시점은 신청 한달 뒤로 기존 활동지원 급여비용의 50% 수준으로 제공된다.

다만 지원을 받는 대상이 일반적으로 활동지원인력의 고용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지원 중단사유로 가족급여

## 서천지속협 “노루섬 야생조류 보전도서로 지정해야”

### 해수부 등 4개 행정기관에 요청

충남 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일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있는 서천군 노루섬을 야생조류 보전도서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서를 해양수산부 등 4개 행정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천지속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위원들과 조류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두차례 실시된 조류조사에 대한 생태조사

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활동지원사의 확인서(중단이나 미이용 사유 작성)를 제출해야 한다.

또 급여비용을 받는 가족은 반드시 활동 지원인력 현장실습(10시간)을 받아야 한다.

최희진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가족 급여 기간 연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 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 임정일기자 imci@jeonmae.co.kr



충남 서산교육지원청은 최근 관내 3학년 이상 초등자녀와 부모님으로 구성된 총 7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고동락시 가족 코딩캠프를 실시했다. <서산교육지원청 제공>

## 서산교육지원청, 동고동락시 가족 코딩캠프 진행

### 인공지능과 동고동락으로 펼치는 미래교육 실시

충남 서산교육지원청은 최근 동고동락시 가족 코딩캠프를 실시했다.

관내 3학년 이상 초등자녀와 부모님으로 구성된 오전 15가족, 오후 15가족 총 7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화 의실에서 코로나19의 방역 지침을 지키며 진행됐다.

이번 가족 캠프의 주제는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인공지능 미션 수행’ 마이크로비트의 이해와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활용에 대해 체험해보고 마린 카를 코딩해 미로판에서 움직여보는 활동으로 운영됐으며 참여 가족에게 마이크로비트 보드와 각종 센서, 마린 카, 관련 책자를 제공해 가정에 돌아가 서도 계속해서 탐구하고 활동해 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캠프에 참여한 학부모는 “이번 캠프를 통해 낯설었던 코딩에 대해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했고 아이와 함께 교과 과정에 반영될 코딩을 배우 더 좋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산교육지원청은 2년 연속 4차 산업혁명교육 중점교육지원청으로 선정 돼 ‘인공지능과 동고동락으로 펼치는 미래 교육’이라는 비전을 잡고 함께 이룬 활용에 대해 체험해보고 마린 카를 코딩해 미로판에서 움직여보는 활동으로 운영됐으며 참여 가족에게 마이크로비트 보드와 각종 센서, 마린 카, 관련 책자를 제공해 가정에 돌아가 서도 계속적으로 탐구하고 활동해 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캠프에 참여한 학부모는 “이번 캠프를 통해 낯설었던 코딩에 대해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했고 아이와 함께 교과 과정에 반영될 코딩을 배우 더 좋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산교육지원청은 2년 연속 4차 산 업혁명교육 중점교육지원청으로 선정 돼 ‘인공지능과 동고동락으로 펼치는 미래 교육’이라는 비전을 잡고 함께 이룬 활용에 대해 체험해보고 마린 카를 코딩해 미로판에서 움직여보는 활동으로 운영됐으며 참여 가족에게 마이크로비트 보드와 각종 센서, 마린 카, 관련 책자를 제공해 가정에 돌아가 서도 계속적으로 탐구하고 활동해 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캠프에 참여한 학부모는 “이번 캠프를 통해 낯설었던 코딩에 대해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했고 아이와 함께 교과 과정에 반영될 코딩을 배우 더 좋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 강원교육청, 교과·교훈 성차별적 요소 개선 나선다

### 우리학교 교과·교훈 돌아보기 추진

강원교육청은 20일 2021년 ‘우리학교 교과·교훈 돌아보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한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교과·교훈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파악하고 전문가 검토를 지원해 교육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자율 수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교과·교훈 성차별적 요소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초·중·고·특수학교별 교과·교훈 전문을 접수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관련 전문가 T/F팀을 구성해 성차별적 요소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21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검토 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별 자율 수정 기간을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뒤 학교별로 동문회,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자치회 등과 협업해 자율 수정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추진/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강원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대비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제공>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성수기 대비 다중시설 방역 강화

### 방역단 5개조 90명 구성

강원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대비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달부터 약 3개월간으로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5개조 90명으로 구성된 행복 정신 생활지원 코로나19 방역단은 운영되고 있다.

행복 정신 생활지원 코로나19 방역단은 지역의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가, 유동인구가 많은 공영터미널, 버스정류장, 경로당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관광·체육·아형시설 등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 방역 관리 자를 지정·관리하고 매일 집중적인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월라 공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화합공간을 비롯한 이형시설에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어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개인 방역 수칙 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고 등록부 작성 및 발 열체크, 손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강화하고 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 의정부시, 청년 취업 ‘버팀목’

## 면접장대여·이력서 사진도 무료 청년 취업여량 강화 프로그램 시행

경기 의정부시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의정부일자리센터는 지난해 11월 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청년층의 구직 활동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면접장대여 서비스,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서비스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19년 면접장대여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초창기 대외장소의 집에 요구사항을 갖춘 청년 구직자들도 점차 만족하면서 인소문을 타고 인기가 높아지게 됐다. 현재까지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높은 만족

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진행된 이력서 증명사진 무료 촬영 서비스가 있다. 이력서 사진은 촬영비용이 1회 평균 3만 원으로 청년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이력서 증명사진 무료 촬영 서비스를 신청하면 1인당 연 2회에 한해 이력서 사진 인화본 8장과 사진 파일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면접장대여 서비스와 동일하다.

센터는 이외에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내면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실시한 공공기관 대비 NCS 취업전략 특강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채용 동향과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

는 총 52명이 참여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96%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또한 22일~23일 온라인 단기특강 ‘슬기로운 취업생활’을 추진해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명확한 목표나 취업 스킴이 부족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의정부 청년 취업준비생은 이번 특강을 통해 기업분석을 통한 잡서치 활용법, 실질적인 구직기술 향상법을 습득할 수 있다.

안병용 시장은 “취업을 겪고 있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시 일자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향후에도 청년층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는 취업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경진기자 kij@jeonmae.co.kr



대전시의회 코로나19와 청소년 연구회는 청소년의 교육 양극화 개선을 위한 심리돌봄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 제공>

## 대전시의회, 심리돌봄 프로그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청소년 교육 양극화 개선

대전시의회 코로나19와 청소년 연구회는 지난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교육 양극화 개선을 위한 심리돌봄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교육 양극화 개선을 위한 심리돌봄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기현 의원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교

육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심리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분석을 통해 교육 양극화 효과를 검증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심리돌봄 허브 역할의 통합플랫폼 구축 전략안을 마련해 교육정책 효율성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는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난 5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 수행해 오는 9월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 용인시, 109개 기업 2036건 수출 상담

## 277억 상당·중소 해외 판로 개척 지원 국내 첫 엔택트 수출상담실 기동 호평

경기 용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시는 20일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올 상반기 109개 기업이 2036건 277억 상당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건도 48건 17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136개 기업이 4011건 536억 상

당 상담을 진행해 총 89건 33억 상당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는 코로나19로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 등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시가 신속하게 기존 지원사업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한 결과다.

시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엔택트 수출상담실’을 가동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바이어를 화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월 10개 기업을 모집해 화상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관내 중소기업에 제품 홍보, 마케팅, 판촉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엔택트 수출기업화’ 사업과 수출 거래처에서 대금

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액의 80%까지 보상해주는 수출무역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각종 국내외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식품대전에 관내 중소기업 9곳이 참가할 수 있도록 공동관을 운영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관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국내외 판로 개척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 13일~17일 관내 수출 기업 10곳과 중국 베이징·텐진 바이어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용인/ 유원수기자 youys@jeonmae.co.kr

### 일산복음병원, 4차 폐렴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만 18세 이상 환자 치료 전국 660개 의료기관 대상 6개 항목 평가 중 5개 만점 종합점수 99.8점 기록

일산복음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4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4년부터 폐렴 적정성평가를 시행해 폐렴 환자가 거주하는 가까운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를 평가하고 공개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항생제 치료를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제외) 등 전국 66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평가내용은 총 6개 항목으로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도말·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로 평가됐다. 일산복음병원은 5개 항목 만점을 받아 종합점수 99.8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손정일 병원장은 “폐렴은 감기, 독감 증상과 비슷해 초기에 진단이 늦어지면 치료시기를 놓쳐 악화될 수 있다”며 “폐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복음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관절 치환술 진료량 평가’에서 지난 2009년부터 5년 연속 1등급을 받아 고관절치환술 등 고관절도 수술에 대한 최우선병원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고양/ 임정일기자 imi@jeonmae.co.kr

## 정선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 일정 연기…내달 13~22일

### 확진자 증가로 변경 결정

정선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 추진위원회는 ‘2021년 고한 골목길 정원박람회’ 일정을 변경해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추진위원회 당초 내달 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고한을 일원에서 고한 골목길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관공과 국민안전을 위해 내달

6일 개막행사를 연기하고 내달 13일부터 22일 까지 변경해 개최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야생화 마을 주민들은 남은 기간동안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해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주민 스스로 아름다운 마을구꾸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일상으로의 초대’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는 고한을 고한 10·17리·18리·19리 일원에서 내달 13일부터 22일

까지 중점 개최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주민 주도로 축제를 이어간다. 정원박람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원 버스킹 공연, 주민참여형 포파마켓 운영, 마을미술관 운영, 팔복길 정원, 포토존, 마이가든어워드, 주민주도 체험프로그램 등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우영 고한 골목길 정원박람회 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원박람회를 연기하게 됐다”며 “군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행사를 부득이 날짜를 변경해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 논산시, 녹색 나눔 숲 조성…자연친화적 치유공간 기대

### 산림복지진흥원 복권기금 1억 투입

충남 논산시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지원 받은 1억 원의 복권기금으로 강경호시장 요양병원 내 ‘치유공간-나눔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강경호시장요양병원은 2021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임시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던 내대지에 전동수종인 소나무를 비롯해 배롱나무 등 16종 281주를 약 882㎡규모 공간에 식재하고 편의시설과 산책로를 조성했다. 시는 이번 나눔숲 조성을 통해 요양병원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외 숲체험 공간을 마련, 면역력 증진과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나눔숲 조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이용객들이 자연 속에서 심신을 위로받는 힐링의 시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많은 사람들이 차별없이 녹색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 박석희기자 psh@jeonmae.co.kr

## 철원군농기센터, 개발 신제품 쌀 추석 전 조기출하

### 오대배보다 도정수를 높여

강원 철원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철원군 특성에 맞는 신제품 벼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출수가 빠른 철기미50호를 육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철기미50호 품종의 특징은 출수가 빠른 극조생 품종으로 수량성도 오대배보다 5~10%정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출수기가 오대배 보다 5일 이상 빠르고 등숙속도가 빠른 극조생 품종으로 도정수율이 오대배에 비해 4~5%높고 수량성 또한 높아 재배농가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며 밭맛

또한 오대배의 향미를 이어받아 오대배와 비슷한 정도로 쫄깃한 맛이 있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 “추석 전 조기출하미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철원농협을 통해 오는 9월초부터 순수미작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할 계획이며 올해 소비자 반응과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내년부터는 100ha 이상 재배해 오대배의 명성을 버겁갈 수 있도록 전략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 가평군, 복장1지구·상색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1억4500만원 전액 국비 지원

경기 가평군은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복장1지구·상색3지구’에 대해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사업지구 지정 고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복장1지구·상색3지구 80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비용 1억 4500만 원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내년까지 알필지구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를 통한 경계확정 등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과 의견취취, 토지소유자 동시서 징구를 위해 ‘가짜호주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사업진행 촉속 요건인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2/3이상의 주민동의서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어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 결을 받았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제 분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가평/ 박승호기자 seungho@jeonmae.co.kr

ECO-FRIENDLY CAMPAIGN

♻️

## 재활용품 분리배출 4원칙

# 재활용품 분리배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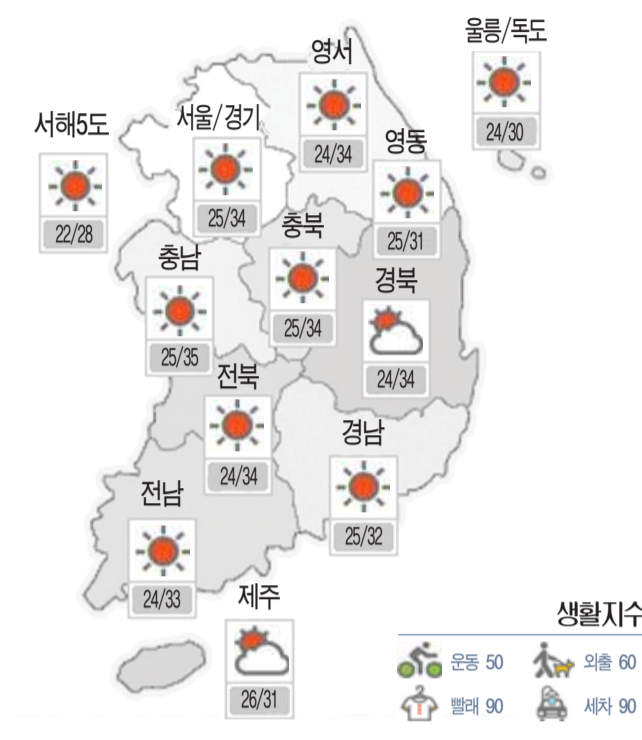
## 네가지 원칙만 기억해주세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보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 위해 우리모두 함께해요!

<h3>1 비운다</h3> <p>용기 안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다</p>	<h3>2 행군다</h3> <p>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 등을 행군다</p>	<h3>3 분리한다</h3> <p>라벨,뚜껑 등 다른 재질을 분리한다</p>	<h3>4 섞지않는다</h3> <p>종류 및 재질별로 섞이지 않게 배출한다</p>
--	---	--	---

오늘의 날씨 '열돔' 속 본격 불볕더위

21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올라 담겼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3도, 낮 최고기온은 28~36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더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범계동주민자치위, 로데오거리 방역수칙 무기한 계도활동 '행복한 일상으로 복귀, 범계에서 더 안심' 캐치 프레이즈로

경기 고양시의 대표적 변화기인 범계역 일대는 20~30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과 주점들이 밀집된 곳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재점화돼 방역수칙이 각별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에 안양시 범계동주민자치위원회가 심각성을 인식, 범계로데오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무기한 순찰 및 계도활동에 돌입했다. 캐치 프레이즈는 '행복한 일상으로 복귀, 범계에서 더 안심'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폭증

하고 있고 이중 20~30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업소에서 집중 발생하는 가운데 젊은층들이 많이 찾는 로데오거리 일대의 방역수칙을 정착시켜 감염확산세 조기 진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범계동주민자치위원회와 공무원들이 지난 16일 밤늦은 시간에 첫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문

구의 어깨띠와 조끼를 착용한 채 로데오거리를 시작으로 인근의 소공원과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의 철저한 준수가 행복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길 것임을 주지시켰다. 또 야외에서의 모든 읍행행위가 금지되고 3인 이상 집합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전달하며 잘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 구매할 마

세종교육청, 체육진로캠프로 미래 유망직업군 탐색

세종교육청은 20일 보람초등학교에서 초·중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체육진로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체육진로캠프는 초·중학교 운동부 학생선수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학생선수들은 체육 관련 유망직업군을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를 직접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록경기형(육상, 수영), 개인 경기형(검도, 태권도, 씨름) 종목별로 분반한 이론 및 체험활동으로 종목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향후 자신의 종목과 연계해 본인의 경기 능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체육진로캠프 오전 1부 프로그램은 학생선수의 삶과 미래, 4차 산업 혁명 체육 인재로 성장하기라는 주제를 통해 탁구 선수 출신인 안국희(부천 부



집중호우로 인해 해안으로 유입된 조목류와 부표 등 해양 쓰레기. <남해군 제공>

남해군, 집중호우로 유입된 해양쓰레기 수거 총력

남해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해안으로 유입된 조목류와 부표 등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2 남해군 방문의 해에 관내 해안으로 유입된 조목류와 부표 등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해양봉사단과 해양수산과가 협력해 해양 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정화활동 행사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쓰레기 해양수산과장은 "집중호우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해/ 박종범기자 bjb@jeonmae.co.kr

대전시, 온통대전카드 결합 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전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의 교통복지카드 기능에 대전지역외교계 온통대전카드를 결합한 교통복지카드를 20일부터 발급한다. 신규 교통복지카드 발급대상자중 온통대전카드 결합을 원하는 경우 기존 교통복지카드 이용자 중 온통대전카드 결합을 희망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현재 대전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 30만 6000명이다. 신봉준과 무임승차대상자임을 입증 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대전시 소재 시내 온통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교체비용은 무료다. 교통복지카드와 온통대전카드 기능을 통합 발급함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는 이 한 장의 카드에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화폐 결제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부모에 대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왔다.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인천경찰청, 방역수칙 위반업소 32곳 적발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위반업소 32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165명을 형사입건하고 104명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6층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9일에는 사회적 거리두

4·16민주시민교육원 '청소년 영상·로고송' 공모

경기교육청 소속 4·16민주시민교육원이 416재단과 오는 2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영상·로고송 공모전'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접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0일까지며 4·16 세월호 참사 추모, 생명과 안전에 대한 존중,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안전 문화 확산 및 정착 등을 주제로 한 영상과 로고송 두 분야로 진행된다. 응모 방법은 홈페이지와 참가 신청서, 4·16민주시민교육원이 지정하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자체심사를 거쳐 영상 분야 10편, 로고송 분야 10곡 등 모두 20작품을 선정해 내달 27일 4·16민주시민교육원과 416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은 "4·16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며 "공모전이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실천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희기자 goodnews@jeonmae.co.kr

화성시 매항리 깃발, 해수부 '습지보호지역' 지정

경기 화성시 매항리 깃발이 드디어 해양수산부로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람사르 습지' 지정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매항리 깃발은 저서동물 180종과 철만초 2종 등 20여 종의 열생식물,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 법정보호종을 비롯, 2만여 마리의 철새가 관찰된다. 특히 지난 2018년 국제철새보호기구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등재되면서 국제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은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연구사업과 함께 환경저해요인 정비 등 각종 생명체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방문객센터와 탐방로, 탐조대 등을 설치하고 습지보호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한편 수산종묘 및 종래 지원 사업, 생태관광 콘텐츠 및 테마마을 개발 등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화성/ 최승필기자 choi-sp@jeonmae.co.kr

금산군, 벼 병해충 방제·이삭거름 사용 증점지도

충남 금산군은 오는 31일까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병해충 방제 및 이삭거름 사용 증점지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증점에서 내달 초까지는 삼평리와 새누리 등 지역 주요 품종의 이삭거름 적기사용 시기로 이 기간에 읍면담당자 28명, 예찰 조사원 2명, 상담요원 5명을 지도반으로 편성해 현장 지도가 추진된다. 이삭거름은 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이삭기 20~25일 전에 10a당 15kg 내외로 사용하면 되고 벼 생육 및 병해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품종별, 모내기 시기별 등을 고려해 적정 시비를 잘 관리해야 한다. 특히 충남도 육상풍중인 삼평리는 도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달 초에 이삭거름을 살포해야 한다. 금산/ 황선종기자 m04570@jeonmae.co.kr

삼척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12월까지

강원 삼척시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처리대책 마련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의 기초 조사 자료를 구축했다. 8년 만에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슬레이트 절개·처리지원 및 자부담사업 지원사업의 비용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절개·절거가 필요한 슬레이트 건축물로 건축물 소재지, 건축대상 등재여부, 건축용도, 건축면적, 슬레이트지붕 면적, 지붕 덮개유 여부 등을 조사한다. 특히 지난 2013년 실태조사 당시 조사가 미흡했던 미등록 건축물,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 등 자업간소 불량, 대규모 비주거용 슬레이트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사결과를 한국환경공단 슬레이트 처리 시스템에 등록해 향후 슬레이트 관리 사업 추진에 활용될 계획이다. 삼척/ 김충희기자 kimhs@jeonmae.co.kr

여주 제일시장 주차장 폐쇄에 상가·주민 반발

경기 여주시가 제일시장의 공적 매입을 완료하고 안전진단을 위해 시장내 주차장까지 안전 차단벽으로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과 주민들이 주차장을 폐쇄하고 건물들을 따라 차단해 각종 안전 방지 및 건물 안전진단 과정에서 약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상점가 및 주민 편의 차원에서 주차장을 재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달 하순부터 3개월 정도의 일정으로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안전진단 과정에서 다소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고 안전진단 이후 주차장 재개방에 문제점이 없을 경우 주차장 개방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경기 여주시가 제일시장의 공적 매입을 완료하고 안전진단을 위해 시장내 주차장까지 안전 차단벽으로 통제했다.

여주 제일시장 주차장 폐쇄에 상가·주민 반발

인근 상인 A씨는 "최근 제일시장의 폐쇄로 면 단위 일부 주민들에게는 동쪽의 시장이 모두 문을 닫았다는 잘못 알려진 소문이 확산되면서 막상 제일시장 전체를 철거벽으로 차단해 제일시장 인근 상점가는 더욱 쓸쓸한 분위기"라며 "시장 내 주차장까지 통제해 2층 3층의 교통을 겪고 있어 주민 편의 차원에서 유연한 행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도 "제일시장 전체를 각종 안전과 건물 안전진단을 위해 차단하는 것은 이해한다"며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 시각에서는 주차장을 제외하고 건물들만 따로따로 차단해도 각종 안전과 안전진단 과정에서 일부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으나 안전진단 자체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다소 주민들의 의견

고양시 청소년, 문제의식 담긴 정책제안 완성한다

**청소년 제안창작소 2차 워크숍 열어 서비스디자인 기법 활용 교육 도입**

경기 고양시는 '2021년 청소년 제안창작소 2차 워크숍'을 열어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을 다듬고 완성시키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1차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2명의 서비스디자이너가 참여해 제안창작소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배양 워크숍을 진행했다. 특히 시는 청소년들의 문제의식이 담긴 정책제안이 완성되도록 올해부터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용한 교육을 제안창작소에 도입했다. '서비스디자인 기법'이란 수요자의 경험, 행동 등을 관찰하고 분석해 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개선하는 방법이다. 워크숍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식당 내 남은 음식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돕기", "무단횡단 방지" 등 환경·복지·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생각을 정책 제안으로 이어졌다. '전통키보드 올바르게 사용하기' 등과 같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청소년들은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2주간 추가적인 조사활동을 마친 후 오는 31일 3차 워크숍에 참여해 제안서를 최종 완성할 계획이다. 완성된 제안서는 부서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며 활동 내용을 평가해 '우수팀'을 선발하고 '우수제안'을 선정한다. 한편 청소년 제안창작소는 지난 2019년부터 시가 운영 중인 '청소년 대상 제안교육 프로그램'으로 고양시 거주 청소년 및 고양시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와 시청소년재단(토강청소년수련관)이 협력해 청소년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효과를 높이고 있다. 고양/ 임정일기자 imci@jeonmae.co.kr

'아시아컵 보령 국제요트대회' 국내 처음 연다

대전해수욕장 앞 해상서 26일까지 예선 경기에서 본선 진출권을 따낸 여수시청·박(BUG)·병택 데블스·팀 스포츠·팀 춘남·팀 해운대 등 6팀이 참가하고 옵티미스트 종목에 40척, 49er 종목에 5척 등 총 50여 척이 참가해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요트경기 관람 이외에도 제2회 온오프(ON/OFF) 보령 마드축제를 비롯해 대전해수욕장에서 마드스프레이 샤워부스·마드비키어 등 마드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마라니 컨퍼런스, 해양레저산업 전시회, 해양레

# 여순사건 유족회장 '가짜 유족' 논란

여순사건 지역회장 등 관계자들 "철저 조사" 요구  
회원 가입비 등 공중비용 불법 거출 '횡령 의혹'도

광복회 회장, 5·18 부상자 동지회 회장 등 "유공자는 가짜"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순사건 유족회 A회장에 대한 가짜 유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여순사건 시·군 유족회장과 유족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제의 A씨는 지역 유족들도 모르게 지난 2016년 무렵부터 자칭 여순사건 보충유족회 회장 등 '여순항쟁 및 한국전쟁 희생자유족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여순사건 관계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특히 A씨는 광주시 광산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순항쟁 동부연합회라는 간판까

지 내걸고 지난 2019년부터 고흥군 등 인근 지자체 유족들에게 유족회장 명함을 내밀고 가입비와 여순사건 소송에 따른 공중비용 등 명목으로 1인당 수십여 만 원씩을 거출했으나 현재까지 유족들에게 정산을 하지 않는 등 회비 횡령 의혹까지 일고 있다. 더구나 회계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또한 부인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의 불씨가 증폭되고 있다. 가짜 유족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A씨는 자신의 부친이 여순사건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201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증거 미흡으로 '판단 불능'을 받고 기각된 사실이 과거 사 조사문서에도 나와 있다. 보성군 6·25 피력살자유족회 B도 회장은 지역에서 활동도 하지 않은 A씨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자칭 "여순사건 유족회장"이라며 "회원명단을 탈라"고 해서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B회장은 "여순사건 유족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가입비, 소송비용 등을 챙기고 있으나 우리 협회에선 본부 등 각종 행사 참석 시 교통·사비 등 외에는 어떤 비용도 거출하지 않고 이 또한 철저히 사용내역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군 유족회 C도 회장은 "지난해 A씨에게 연락이 와 광주 사무실로 갔더니 유족회 가입비와 소송 공중료 등 24만 원을

요구, 납부했다"며 "내가 알고 있는 고흥 지역 유족회원 20여명 등 수많은 회원들이 12~15만원씩, 기준없이 납부했지만 현재까지 회비 정산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여순 10·19 특별법제정법국민연대 한 관계자는 "A씨의 가짜 죄합 등을 이용한 가입비 거출 등 행적에 대해 전남도 관계 당국은 물론 유족 대표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입을 다물고 있었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A씨의 전화를 받은 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대신 전화를 받는 다"며 "아무런 할말이 없으니 쓰고 싶은대로 쓰라"고 돌려댔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증거 미흡으로 '판단 불능'을 받고 기각된 조사문서	대상	조사기간	결과
1	김영환	2016.12.15	판정 불능
2	이영환	2016.12.15	판정 불능
3	정영환	2016.12.15	판정 불능
4	강영환	2016.12.15	판정 불능
5	한영환	2016.12.15	판정 불능
6	김영환	2016.12.15	판정 불능
7	이영환	2016.12.15	판정 불능
8	정영환	2016.12.15	판정 불능
9	강영환	2016.12.15	판정 불능
10	한영환	2016.12.15	판정 불능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증거 미흡으로 '판단 불능'을 받고 기각된 조사문서. (의성=한겨레 취재팀,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 캡처)

## 충남도, 휴가철 산간계곡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화

내달까지 300여명 기동반 편성  
15개 명산·등산로 50개소 대상

충남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내 주요 계곡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내달 말까지 300여명의 단속기동반을 편성, 15개 시군 명산 및 등산로 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점유 및 취사, 오물투척,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산내 법질서 확립을 통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를 유지 위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행위 및 상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

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적치 등이다.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급증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해 숲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내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호남취재본부/ 한성규기자



여수 한재사거리서 12중 추돌...12명 사상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승 차량이 브레이크가 파열돼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남 여수 한재사거리에서 20일 오전 8시 55분경 자동차 운반트레일러가 우회전 하면서 반대편 차선을 넘어 차량 12대를 들이 받아 공공근로에 나선 노인 3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승 차량이 브레이크가 파열돼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남 여수 한재사거리에서 20일 오전 8시 55분경 자동차 운반트레일러가 우회전 하면서 반대편 차선을 넘어 차량 12대를 들이 받아 공공근로에 나선 노인 3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승 차량이 브레이크가 파열돼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북도내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점검 나선다

도, 9월 17일까지 300여곳

경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 17일까지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 이용과 환경 보전을 위해 오수처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등록된 야영장 307개소의 오수 무단배출 여부를 비롯해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포함)의 적정한 운영관리 등을 관찰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신고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기술관리인 선임과 내부 청소 이행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도내 야영장 약 170여곳을 특별 점검해 7개소를 적발해 과태료부과 6건, 개선명령 7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최영숙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로 가족단위의 야영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이번 점검으로 사업자의 환경관리 의식 제고는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휴가철 야영장의 오수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신웅대기자 shindy@jeonmae.co.kr

## 정교사 채용 대가로 사학재단 수십억 '꿀떡'

수학 문제 풀 흔적도 없는데 '민첩' 기간제 교사·부모 26명에 18억 배양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학재단이 걸렸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양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도의 한 사학재단 관계자 10명을 입건해 이 중에 범행을 주도한 이상장 아들이자 재단 소속 학교 행정실장 A씨 등 3명을 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정교사사합에 부정협력

한 기간제 교사 21명과 교사부모 5명 등 26명은 배양수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뒤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차려진 이 재단 소속 학교 정규직 교사 채용시험 과정에서 돈을 받고 문제와 시험지를 특정 응시자들에게 사전 유출해 B씨 등 13명을 부장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합격한 B씨 등 기간제 교사와 부모 중 일부는 지난 2015년에 이미 재단 축에 돈을 건넸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채용시험을 재단이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위탁채용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고 재단 측은 교육청 권고대로 할 경우 이미 돈을 받은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 2016

년~2019년까지 이어 채용시험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꾸준히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한 돈을 받았고 이듬해부터 채용 독촉을 받게 되자 A씨 등 재단 측은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고 자체로 자체적으로 채용시험을 진행했다. 당시 교육청은 감사에서 최종 합격자 13명의 시험 평균 점수가 나머지 응시자의 평균 점수보다 월등히 높은 점, 수학 과목에서 민첩을 받은 합격자 1명의 경우 전체 25문제 중 17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이 시험지에 전혀 없는 점 등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재취기자 goodnews@jeonmae.co.kr

확 끌어당기는 프로의 언어

신영대

## 확 끌어당기는 프로의 언어

사이토 다카시 지음 | 이정환 옮김 | 200쪽 | 12,800원

세계의 리더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프로의 언어는 무엇이 다를까?

마틴 루터 킹, 스티브 잡스, 왕가리 마타이, 이나모리 가즈오 등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의 명연설에 그 비법이 담겨 있다.

논점을 정확히 전달하면서도, 방향성을 공유하고, 강한 인상을 남기는 프로의 언어로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www.namubook.co.kr Tel 02-334-3339 Fax 02-334-3318

동 정

**조례규칙심의회**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21일 오후 2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참석.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은 21일 오전 10시 시청 통상상담실에서 진행되는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에 참석.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방문**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은 21일 오전 9시30분 고3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

**목회로터리클럽 회장단 이취임식**  
조영제 경북 영천시의회 의장은 21일 오후 6시 30분 영천스타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리는 제25, 26대 영천목회로터리클럽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수료식**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는 21일 오후 1시 30분 예산산업단지 회의실에서 열리는 지역산업진흥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수료식에 참석.

**수성문화제위원회 정기총회**  
함영준 강원 고성군수는 21일 오전11시 문화의 집에서 열리는 수성문화제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

**풋고추 첫 출하시**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는 21일 오전 10시 화암면 백전리 고추 공동선발장에서 열리는 풋고추 첫 출하시 행사에 참석.

**풋고추 첫 출하시**  
전영기 강원 정선군의회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화암면 백전리 1리 공동선발장에서 열리는 화암면 풋고추 첫 출하시 행사에 참석.

**상생협력기금 1200억 조성**  
NH농협은행은 전남 한국수력원자력 및 경주시와 함께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주상생협력기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NH농협은행은 한수원과 함께 1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경주 소재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를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대출금리는 신청기업들의 신용도를 기초로 금리 산출한 후 일반적으로1.8%를 인하함으로써 최저 0.5%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10억원이며, 최장 2년까지 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협약에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문화 조성을 위해 NH농협은행, 한수원, 경주시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고3·교직원 대상 예방접종 실시**  
인천 동구는 동구와 중구(원도심 소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평택 브레인시티 '반도체 연구센터' 발전기금 약정  
**중흥그룹, KAIST에 300억 '선뜻'**

경기 평택시는 전남 중흥그룹이 대전 KAIST를 방문해 반도체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리라 기대하며 KAIST에 평택 브레인시티 반도체 연구센터 발전기금으로 300억원을 약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흥그룹은 브레인시티 내에 조성될 200억 원 상당의 교육연구동을 건설해 현물로 기부하고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현금 100억원을 KAIST에 쾌척한다.

정장선 중흥그룹 회장은 "약 140만평 규모로 추진 중인 초대형 첨단복합미래도시인 평택의 브레인시티 사업과 산학과 지자체가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K-반도체의 도약을 추진해가는 길에 이번 기부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형 KAIST총장은 "이번 기부는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 될 것"이라며 "기부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장선 회장은 "의심 없이 KAIST에 쾌척한다. 한편 KAIST는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 내 캠퍼스 부지에 'KAIST 반도체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산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특화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14일 삼성전자, 평택시와 함께 3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농촌살이 마친 서울 유학생과 작별인사**  
이용덕 순천교육장, 시 소조 흑두루미 관련 도서·로컬 푸드 선물

전남 순천교육지원청 이용덕 교육장은 지난 6개월 간 순천에서 농촌살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낙안·월등초, 월전중 농산어촌유학생 7명과 가족을 찾아 순천살이가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시의 시조인 흑두루미 관련 도서와 순천의 로컬 푸드를 선물로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순천 시조인 흑두루미 관련 도서·로컬 푸드 선물을 받고 있는 유학생들. <순천교육청 제공>

이용덕 교육장은 "순천에 와서 살 아보니 무엇이 가장 좋았습니까?"라는 질문은 이회서장 5학년 한 유학생은 "서울에서 할 수 없었던 걸 많이 경험했다"며 "열심히 살다 보니 살이 5kg이나 빠졌어요"라고 대답했다.

이 교육장은 "6개월 전에 만났을 때보다 더 건강하고 많이 자란 모습이 대견하다"며 "순천에서 신나게 뛰어 놀며 열심히 살았던 기억을 잊지 말고 서울로 돌아가서도 씩씩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서산시, 우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 진행**  
충남 서산시 읍면면 주민자치회는 최근 '2021년 우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길 위에서 배우는 우리 마을 예요 신촌'을 상동리와 부정리 일원에서 진행했다.

'길 위에서 배우는 우리 마을'은 읍면면 주민자치회의의 자치사업으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주민들이 함께 지역의 역사, 환경, 문화 요소를 둘러보고 배움으로써 지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경기 평택시는 지난 19일 중흥그룹이 대전 KAIST를 방문해 반도체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리라 기대하며 KAIST에 평택 브레인시티 반도체 연구센터 발전기금으로 300억원을 약정했다. <중흥그룹 제공>

**농업회사법인 바름, 경기 광주시에 이웃돕기 성금**  
농업회사법인 바름(주)이 경기 광주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바름(주) 대표는 "코로나19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이 조금이나마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도 성금 1000만원에 기탁한 바 있는 바름은 도척면 유정리에 설립된 친환경 농산물 유통업체로 관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매입해 관로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광주/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새/인/물  
**최병윤 제76대 순천경찰서장... "시민 안전 확보"**

전남 순천경찰서는 제76대 서장으로 최병윤(사진) 총경이 전남 취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서장은 "이름다른 생애 도시의 치안 책임자로서 첫발을 내딛게 돼 영광이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찰의 존재 이유인 시민이 평온하게 일상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확보, 비극과 엄청난 법 집행들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최 서장은 순천 출신으로 순천 마산고교, 전남대 행정학과(석사)를 졸업, 전남청 치안지도관, 전북청 정보보호장비과장, 전남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등을 역임했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장진영 제81대 광양경찰서장... "정의로운 사회 구현"**

전남 광양경찰서 제81대 장진영(사진) 서장이 전남 취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서장은 "전남에서 가장 빛나는 도시인 광양의 치안 책임자로 근무하게 된 것이 크나큰 기쁨이다"며 "시민이 안전한 광양을 만들고 적법적자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경찰이 될 것"을 취임소감을 표백했다.

장 서장은 1986년 간부후보 44기로 경찰에 입문, 경찰대학장관, 서울청 보안부서관장, 전남청 홍보담당장관 등을 역임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광주/ 최성기기자 sgchoi@jeonmae.co.kr

포토뉴스



**BNK경남은행 산청지점, 선펡기 100대 전달**  
BNK경남은행 산청지점이 20일 산청군청을 찾아 선펡기 100대를 전달했다. 이번 선펡기 전달은 경남은행의 2021 시원한 여름나기 취약계층 선펡기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산청/ 박종용기자 bjb@jeonmae.co.kr



**의정부로터리클럽, 손소독제 5040개 기탁**  
경기 의정부시는 20일 의정부로터리클럽에서 손소독제 504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진규기자 kjg@jeonmae.co.kr



**보령시, 중장년 지역 직무 적합 인재양성과정 개강**  
충남 보령시가 아주자동차대학 산학협력단과 함께 실시하는 '중장년 지역 직무 적합 인재양성 과정'이 이날 개강식을 마치고 본격 훈련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보령/ 이견영기자 leegy@jeonmae.co.kr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춘천시 ICT분야 정책 간담회 개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마련한 '춘천시 ICT분야 정책 간담회'가 이날 청작발전소 1층 아이디어카페에서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농협양양군지부, 2040 탄소중립 자원봉사 릴레이 전개**  
NH농협양양군지부는 전남 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2040 탄소중립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양양/ 박영희기자 parksh-MK@jeonmae.co.kr



**충남군이 자원봉사센터, 구강관리 꾸러미 600세트 전달**  
충남(사)충남군이 자원봉사센터는 전남 직접 제작한 구강관리 꾸러미 600세트를 충남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 최성기기자 sgchoi@jeonmae.co.kr



**금산군청 사이클팀, 이마추어 사이클 동호인과 만남**  
충남 금산군은 금산군청 사이클팀이 최근 관내 이마추어 사이클 동호인과 만남 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진도군 남도사랑봉사단, 소외계층에 밀착한 나눔 봉사**  
전남 진도군 남도사랑봉사단은 최근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밀착 나눔 등을 전달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저소득 청·장년층 100가구에 밀착 나눔을 전달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세대에 봉사활동을 펼쳤다. 진도/ 김원복기자 ky@jeonmae.co.kr

울진/ 장성준기자 csc988@jeonmae.co.kr

'알편 다쳐!' 세상에서 시민 지키는 금과옥조, 버릴까

강상현의 하제별곡



문명비평가 우리글진출원 고문

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고참 기자가 (후배) 기자에게 던진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다. 돌아보니, 누구에게 했었느냐 말하러 하니 말 못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경참서 행사에서 들린 얘기가 아니다. 기자들끼리의 (전화) 대화라니 문제가 된다. 비리의 내용보다 이 대목이 중요할 수 있다.
누구건, 경참도 경참도 기자에게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하고 묻는 것은 금물(禁物)이다. 이말 저말 옳고 그른 사람은 대개 몹쓸 사람이다. 세상사도 그러하다. 이 일은 언론중재의 논리와 윤리관과 설명해보자. '알편 다쳐!' 코미디 대사 같지만 무서운 말이다. 세상 여러 조직의 '선의의' 사람들이 자기 아는 또는 자신이 관개된 비리(非理)를 세상에 알리지 못하는 정황을 짐작케 한다. '착한 뜻'이라는 말 선의(善意)는 법률의 언어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제 의도는 아니지만 '조지 노리'상 비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적지 않았으리라 본다. 안타깝게 숨겨간 공군이 중사 시건의 줄기머리를 훑어보면서 '선의의 삼인자'들이 어긋나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는, 언론은, 제보(提報)가 밥이다. '특식(特食)'도 있었으되 미개 달리지 않은 것 없고 '자기 해탈 들어 탈락'는 은근한 부탁도 많다. 그러나 독자 시청자도 불라는 시민 일반의 제보가 거의 모든 (솔 만한) 기사의 출발점이다.

내부자나 선의의 참여자의 용기 있는 발설(發說)도 중요한 제보다. 그 제보 제공자의 신원(身元)을 지키는 일은 언론의 신성한 의무이고 관다. 언론인 직분의 비방 윤리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방과이자, 적폐(積弊)를 무찌르는 장인 것이다.
기자에게 흑사라도 "누구한테서 그 얘기 들었소이까?"라고 물으면 뺨 맞을 수 있다. 기자의 본디를 포기 하라는 얘기이냐. 왜? 언론이 누가 제보자인지를 누설(漏洩)했다 치자, 어느 누가 그를 믿고 장차 제 위원이 나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 공든 말 무너져는 꼴 보이지 않겠는가. 제보(者)에 문제가 있으면 채택하지 않거나 문제점을 제보자에게 확인하고 활용 범위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일단 채택했으면 그 내용이나 절차가 법 통과 배치(背馳)되더라도 사법기관이 '누구냐' 물어도 취재원을 지켜야 한다. 이때 책임을 언론이 질 수 있다. 취재원을 밝히지 않기 위해 감옥에 가는 해외 언론인, 언론이라는 제도가 존경받는 이유로 거론된다. 취재원 비난의 '원격'이다. 전직 고참 기자가 취재원(取材源)이 누구인지를 (기자에게) 물었다는 얘기는 참으로 황당하다. 비난은 잘 숨겨달라는 뜻이다. 원칙은 기본 법칙이다. 기본은 귀중한 가치다. 언론학의 첫 것이랄 수 있는 취재원 비리의 이 가지, 해외 담연해서일까 따로 언급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세상 기본 망가지니 이런 망조(亡兆)도 생겨나는가 보나.

논설위원은 신문사 고참 기자다. 말 대접 좀 하지만 '중견 언론인'이다. '미다이오브'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하다 관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대변인을 했던 이동훈 씨가 SBS 기자에게 '취재원이 누구냐?'고 물었다고 한다. 기사 일부를 보자. ...이 전 대변인이 지난 13일 밤 10시 30분경 한 기자에 전화를 걸어 "어떤 취재원으로 하신 건지 말씀해

H그룹 회장의 용인술

세상이야기



윤 병 화

성남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이를 조사 후에 "김 부정은 전혀 불만 없이 활기차게 직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면, 회장은 "그때"라고 말한다. 임원 승진의 2차 관문에 통과한 것이다.
그래도 더욱 이상한 것은 회장은 김 부장와 같은 사람을 다시 남들이 다 좋아하는 한자어나 가부사 예컨대 사라이 건설 현장 같은 곳으로 발령을 낸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중에 지내면 회장은 다시 비서실장에게 묻는다. "거, 사라이로 김 부장은 요즘 어찌 재나?" 비공개로 알아봐" 조사 후에 "김 부장은 현재에서 불만의 소리가 전혀 없으며, 직원들과 관계도 좋고 업무 성과도 좋습니다" "그때, 그때 다음 승진심사에 상무로 발령 내고 인사로 불러들이" 3차 관문까지 통과하여 전적으로 회장의 신임을 얻었다는 순간이다.
H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을 수하(下)로 채용한 것이다. "회장은 직원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임이라도 하면 해당 부서를 호출한다. 그리고 자갈에서 함금(수요)을 전부 꺼내 주면서 직원을 책망(責)하고 말하지요. 물론 돈이 얼마인지 세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세지 않고 간에 준 함금이 얼마의 금액인지는 잘 알 있습니다. 회장님이 직원 책망 등으로 수요를 사용하면 비서실에서 다시 장전된 금액을 보충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함금을 세지 않고 받은 부서장들의 행동은 같지 않다는 것이 비서실장의 정황이다. 다수의 부서장은 비서실장에게 "어제 회장님이 주신 돈으로 가족을 격려하고, 장례까지 잘 마쳤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다. 그런데 일부 부서장의 보고는 좀 다르다. "어제 회장님이 40만 원을 주셨는데, 병원에 30만 원, 장례비에 10만 원을 지원하고, 50만 원이 남았습니다"라고 하며 성과와 함께 남은 돈을 반환한다. 비서실장이 나쁜 전철은 그로 회장님께 보고 되며, 그때 회장은 "그 친구 참 착하다"고 하고 웃고 만다. 하지만 이 순간이 그가 장차 임원 승진 후 최후의 1차 관문을 통과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각급 관공이라는 작은 일체를 보고 회장님은 그 사람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회장의 마음속에는 '철저한 사람'으로 신뢰를 얻은 사람이 한 두 명은 아니다. 때때로 누가 다음에 임원으로 승진을 하느냐는 것은 알 수 없다. 그런데 비서실장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차기 임원 승진심사 때가 되면 신뢰를 얻어 1차 관문에 통과한 사람들을 거의 탈락시킨다는 점이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난 후에 "그 사람 요즘 어찌 재나?" 한번 알아봐"라고 비서실장에게 지시한다. 비서실에서 비리(非理)에 알리면 승진에 탄탄한 사람들의 반등은 보통 두 가지이다. 불만을 갖는

Opinion 전국매일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투고, 사진, 민평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소 (우 133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봉빌딩) 전화 1588-5762 / 팩스 031-758-4300 / 홈페이지 www.jeornmae.co.kr 외부 필진의 기고, 사진, 특취 등에는 편집자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기대통령의 비전과 능력

기고



이 창 기

한국장애인민동맹협회 총재

지역의 균등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본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경제의 균등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의 통합도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소수의 부자가 국부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위대한 통합을 재해하고 경제성장의 동기를 부여하기 힘들다.
개인의 능력으로 그 부를 다 이루었다는 부자들의 착각이 공정을 파괴한다. 부모를 잘 만고 국가와 사회의 뒷받침으로 오늘의 부를 이룬 그들이 착각에서 벗어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한다. 특히 2030세대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해줘야 하고 짐 많은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사다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의 실물을 잘 아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물가로 정치의 균등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 대립을 완화해주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지난해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규제라는 극단 앞에서 머저도 자신의 이념지향에 따라 국민이 분열되는 모습은 국가의 경쟁력에 허당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사의 왜곡이 빛 아닌 이념적 관형성을 극복하지 않고는 국민통합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지역주의가 정치권 지배하는 구조 속에 서 국론은 분열되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미래는 불투명하다. 통합의 리더십, 화합의 정치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다. 셋째로 지역의 균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물론 지방의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증진하고 있다. 30년 내외 기초자치단체의 30~40%가 사라지고 지방재정은 붕괴 파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 다 해도 견디지 못하는 정치지도자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국도(國道)발전 전략을 위한 해서는 노무현 전대통령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신종감염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밀집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4차산업혁명사이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면 서로 떨어져 살기도 근근나 의료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다. 지방에 스마트도시를 뿌리고 수도권에 다이나믹시킬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차기대통령은 경제와 정치, 그리고 지역의 균등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다면 좋겠다.

차기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당장 경제를 살려야 하고 37개년 국론을 하나로 통합해나가야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적 배진 경제의 성장동력을 살려내야 하고 지방의 공동화를 해쳐 나가야 하는 숙명도 지니고 있다.
아는. 왜냐하면 차기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구나 2030세대가 갈망하는 공경과 대다수의 서민들이 버리는 균등한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차기대통령의 비전은 '바르고 고르며 지금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방 직후 조소앙선생이 부르짖던 삼균주의(三均主義)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소앙선생은 일제의 식민통치로 망진진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경제의 균등, 정치의 균등, 그리고 교육의 균등을 부르짖었다. 오늘 교육의 균등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즐거운전과 주시태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독자투고

임 환 목

강원 춘천경찰서 112차안종합상황실 경위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 본다. 즐거운전은 운전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로가 겹치고 이에 속도감이 둔화되거나 긴장감이 풀려서 발생하며 특히 행락철에 사고가 집중이 된다고 하니 행락철 즐거운전과 주시태만(주시태만은 사고가 집중되는 무조건 1-2 운전은 했으면 반드시 꼭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로 차량을 이동해 잠시 시선 후 산소의 피로를 풀어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수면을 취하거나 휴식을 취해서 나의 몸과 마음의 피로도를 최대한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61.7명(8.4%)으로 이중 48명이 졸음운전과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한순간에 잃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특히 위험한 것은 차량을 시속 100km로 주행하고 할 경우 4초를 줄이고 기어를 하면 100m 이상을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이 출가 도로를 달리는 것이 똑같다 얼마나 위험하고 생각할지도 싶지 않은 상황이 아니겠는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잠제교육으로 졸음운전과 주시태만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했으나 코레일의 영향으로 야채운전을 변경해 맞춤형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 제공을 한다고 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잠깨우는 왕눈이" 스티커를 개발해 전국 주요휴게소에서 화물차와 버스등등을 상대로 무상 부착공공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홍보를 하고 안전교육을 해도 운전자 본인의 노력에 없이는 하늘에 떠도는 구름과도 같다 생각해 본다.

전국매일신문 www.jeornmae.co.kr
대표전화 1588-5762
정 치 부 031-755-5800, 경 제 부 02-749-0923, 사 회 부 031-755-3484
국외취재본부: 서울본사 02-749-0922, 인천본사 032-751-1478, 경기북부본사 031-967-1616, 대구본사 053-471-1111, 경남본부 055-761-7882, 세종본부 044-865-90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봉빌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평대로 649-기명창동, 덕신빌딩
1997년 6월24일 창간(등록번호 가-43호(일간))
본사주소: 서울 역삼동 예봉빌딩 1011호 (우 04520)
구분: 월 100,000원 / 1부 7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분문개장공고 (1차)

광진동에 관한 법률 제20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3조의 규정...
1. 분문위치: 경기 이천시 신둔면 인후리 산 33-1
2. 분문규모: 471
3. 개장사업: 관리행사
4. 개장방법: 가, 무연번호 - 광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나, 유연번호 - 연고자의 협의이양
5. 안전장소: 성남 금산교 추방문 세대동기일 100세대(신수동초등학교(강남동))
6. 광고기간: 최초광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전기간: 10년
8. 광고인: 박관우
9. 신고방법: 본문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소지, 재직증명, 주민 등)를 구비하여 신고자료 신고하여야 함.
10. 신고처: (대상사: 원동행정안전과) 010-5269-3374
11. 기 타: 등 지번(소재지) 부호(주소) 등 공공기관 정보
2021년 7월 21일
유·무연 분문요청 접수처: 김포시의회(1차)팀

싱싱한 새우로 태어나 청정원 양조간장을 만났으니 성공한 인생 아니겠는가!
청정원은 혼합간장이 아닌 100%양조간장만 만듭니다
청정원은 양조간장

생활안정정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광고효과를 누리세요
전국매일신문
광고문의 1588-5762
FAX : (031) 755-5653

은희경 「새의 선물, 천명관 「고래」를 탄생시킨
문학동네소설상 3년 만의 쾌거!
제21회 문학동네소설상 수상작
소각의 여왕 이유 장면소설
www.munhak.com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쿤더더기 없이 쌩쌩 뺐다



통신비, 리브모바일로  
세상 가벼워지다  
데이터 무제한이 월 28,800원  
FLEX LTE 요금제

www.liivm.com

리브모바일을 검색하세요

**EVENT**  
최대 24만원  
더 가볍게!  
갤럭시를  
가져봐

기간: 2021.07.01(목) ~ 2021.09.30(목)

대상: Liiv M Shop이나 삼성 모바일스토어(KB국민은행 가신디지털종합금융센터내) 갤럭시 폰 구매 후 이벤트 페이지에 주문번호 입력한 고객

혜택: 미션 혜택 최대 16만 포인트리와  
유지 혜택 최대 8만 포인트리, 총 24만 포인트리 제공



이벤트 바로가기



\*FLEX LTE 요금제 이벤트 월 기본료 28,800원은 이벤트 기간인 2021.7.1 ~ 7.31 기간 중 개통한 고객 선착순 5,000명에게 개통월 포함 24개월간 제공됩니다.(이벤트 기간 종료 또는 선착순 마감 시, 월 기본료 39,800원, 월 최저 34,300원)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 또는 Liiv M 고객센터(1522-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563호(2021.06.23), 광고물유효기간 2021.7.31까지